"광주 소극장 축제 오세요"

25일까지 씨디아트홀 등 … 대구 극단 '고도' 등 5개 극단 공연

배우들과 가까이서 호흡하는 소극장 공연은 연극 감상의 즐거움 중 하나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광주소극장축제가 오는 25일까지 씨디아트홀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대구 극단 '고도' 등 모두 5개 극단이 참여한다.

▲극단 시민 '백조의 노래'

안톤 체홉의 희곡이 원작이다. 공연이 끝난 후 배우와 극단 관계자들은 파티를 하고 술에 취한 늙은 배우는 분장실에서 잠이든다. 혼자 남게 된 그는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텅빈 무대에서 노배우의 또 다른 연극이 시작된다. 김민호 동신대 교수가 연출을 맡았으며 박규상, 정낙일씨가 출연한다. 16~18일 예술극장 통.

▲극단 얼아리 '날개'

이상의 동명 소설을 연극으로 옮긴 작품이다.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아내가 외출하면 그녀의 방에서 손거울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방에 대해, 아내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의혹을 갖게 되는데….

이기인·이지은·박혜빈씨 등이 출연한다. 15~17일 공연일번지.

▲극단 고도 '용을 잡는 사람들'

2012년 뮤지컬·대본 공모전 수상작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마을을 위협하는 검은 용을 잡기 위해 네 명의 젊은이들은 천왕산에 오른다. 검은 용을 기다리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세상과 단절된 그들은 쌀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복지사를 통해 자신들을 비아냥대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14~15일 예술극장 통.

▲극단 사람 사이 '아일랜드'

아돌 후가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악명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인종분리 정책을 고발하고 있다. 로벤션 감옥에서 연극 공연을 준비하게 된 존과 윈스톤은 3년을 함께 복역중이다. 두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연극을 준비하며 이런 저런 갈등을 겪게된다.

이영환·안윤국씨가 출연하며 송정우씨가 연출을 맡았다. 16~18일 씨디아트홀.

▲극단 DIC '밥친구'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소품이다. 주인공은 34살 동갑내기 성우와 인영. 재수 시절 첫 만남을 가진 후 소식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은 우연히 옆 건물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건물 옥상에서 짧은 점심 시간을 가지며 함께 밥을 먹는다. 최원종씨가 희곡을 썼으며 임홍석씨가 연출을 맡았다. 송민종·박유정씨가 출연한다. 22~24일 공연 일번지.

▲극단 유피씨어터 '가족愛 탄생'

가족, 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작품이다. 카페 일을 하며 집안을 이끄는 첫째, 성공에 대한 꿈을 꾸는 둘째, 취업 준비생 셋째, 사회에 불만이 많은 대학생 막내. 평화로운 이들의 삶에 둘째가 집을 팔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정화진·이솔·최유정씨가 출연한다. 김균형씨가 희곡을, 이동수씨가 연출을 맡았다. 23~25일 예술극장 통.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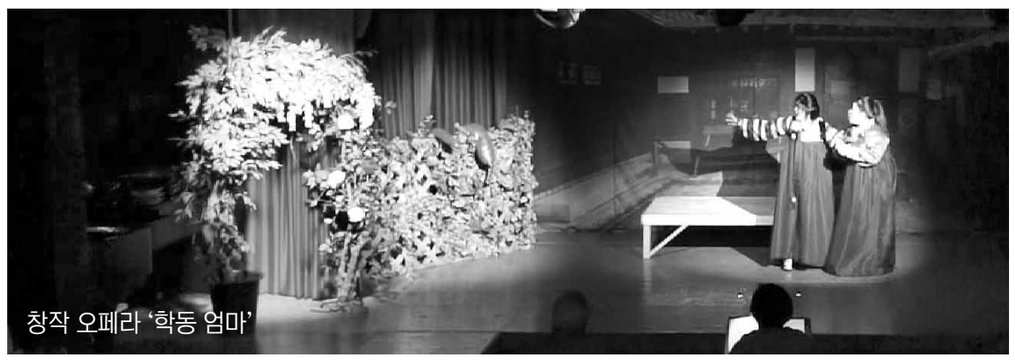
극단 사람사이의 '아일랜드'

■ 광주 소극장 연극축제

극단	작품	날짜/장소
고도	용을 잡는 사람들	14~15일 (오후 7시30분) / 예술극장 통
얼아리	날개	15~16일(오후 7시30분), 17일(오후 4, 7시) / 공연일번지
시민	백조의 노래	16일(오후 7시30분), 17일(오후 4, 7시), 18일(오후 4시) / 예술극장 통
사람사이	아일랜드	16일(오후 7시30분), 17일(오후 4, 7시), 18일(오후 4시) / 씨디아트홀
DIC	밥친구	22~23일(오후 7시30분), 24일(오후 4, 7시) / 공연 일번지
유피씨어터	가족 愛 탄생	23일(오후 7시30분), 24일(오후 4, 7시), 25일(오후 4시) / 예술극장 통

광주 학동·부산 영도다리 오페라·연극으로 펼치는 우리 엄마들의 인생 이야기

부산 영도다리, 광주 학동. 사는 곳은 다르지만, 6·25 전쟁 등 급변하는 현대사 흐름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은 희생과 사랑으로 귀결된다. 연극으로, 오페라로 펼쳐지는 우리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자.



창작 오페라 '학동 엄마'

빛소리오페라단 '학동 엄마' 16~18일 광주아트홀

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 광주대 교수)은 창작 오페라 '학동 엄마'를 공연한다. 16일(오후 7시30분), 17일~18일(오후 4시30분·7시30분) 소극장 광주아트홀.

작품의 배경은 광주 동구 학동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9남매를 키우는 어미의 삶이 노래와 음악으로 전개된다.

주인공은 부모님의 결정만으로 현태와 결혼한 금희다. 지독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마음 고생을 하면서도 꿋꿋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금희는 남편의 바깥 자식까지 거둬 들인다. 아이들을 위해선 어떤 희생도 마다 않던 금희는 아들을 대신해 목숨까지 내놓는데….

주인공 금희 역을 맡은 임영란씨를 비롯해 윤희정·장호영·이원용·강승희·박정희·박정연·김용덕·김지욱씨 등이 출연하며 빛소리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협연한다. 허재걸(한국창작작곡가협회 회장)씨가 작곡을,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문의 062-227-7440~2.

부산 극단 에저또 '영도' 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부산의 명물 '영도 다리'를 통해 어머니의 삶을들려주는 연극 '영도'가 공연된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극단 크리에이티브가 부산 극단 '에저또'를 초청해 마련한 무대다. 18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영도'는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전쟁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목격해온 영도다리를 매개로 한 여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린 작품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말순은 아이의 이름을 딴 영도포차를 운영하며 못 먹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그릇 먹여 보내며 삶을 살고 있다. 밀수가 활개를 치던 시절, 밀수꾼을 쫓는 형사, 쫓기는 밀수꾼, 그 사이 영도포차 주인 말순이 있다.

'에저또'는 1966년 창단한 부산의 대표 극단으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와는 2008년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전국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을 통해 인연을 맺은 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전석 2만5000원. 카페(cafe.daum.net/dm-ccom)를 통해 예약하면 20%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10-7999-50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영도'

가을 … 당신이 즐겨 부르는 우리 가곡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16일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매달 한차례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가 '애창 가곡의 밤'을 마련했다.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이달 행사는 회원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김건이, 고재경, 박상휘, 나인희, 한세준, 유옥순, 임동윤, 서혜란, 박형래, 정경숙씨 등이 '그리운 금강산', '내 사랑 망초여', '그리운 친구여', '세월', '상사화',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꽃구름 속에' 등 애창 가곡을 들려준다.

초청성악가로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수·사진)가'내 맘의 강물'과 '청산에 살리라'를 들려주며 박행조씨의 바이올린 연주도 이어진다. 그 밖에 조두남 곡 '그리움', 장일남 곡 '기다림' 등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이상택씨가 윤동주시 '별 헤는 밤'을 낭송한다. 문의 010-2694-4592, 062-600-71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자가족 시설 우리집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

15일 운남주공 3단지

대한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모자 가족 복지 시설 우리집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 씨앗 바자회가 15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시 광산구 운남주공 3단지에서 열린다.

모자 가족 복지 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세대가 입소해 최대 5년간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는 공간이다. 운남주공 3단지 주민과 부녀자치회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제육볶음, 두부김치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또 우드아트, 리본 공예,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마을 노래 자랑, 판소리 공연이 열린다.

'우리집'은 국비 등 9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산구 운수동에 건축 예정이다. 문의 062-232-131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